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8년도 표어** ⊗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생명의 양식** ⊗

##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설날 예배

**예배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 목도	· 다함께
· 성시	· 시편1편 1~3절 · 인도자
· 찬송	· 28장 · 다함께
· 기도(또는 사도신경)	· 가족중(또는 다함께)
· 성경봉독	· 시편 85편 1~13절 · 인도자
· 말씀	· “의와 화평이 입 맞출 때” · 인도자
· 찬송	· 460장 · 다함께
· 주기도	· 다함께

**본문 말씀**  
(개역개정판 시편 85편 1 - 1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 의와 화평이 입 맞출 때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시인은 주님께서 지나간 세월동안 베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1-3) 현재를 반성하면서(4-7) 새로운 내일을 위해 기도하고(8-9) 응답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10-13)

### 1.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좌절감과 낙심을 이기는 출발점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1-3)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확실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할 확실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 2. 현재를 반성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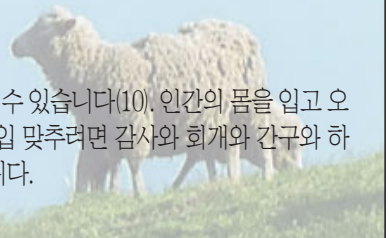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현재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현재의 위기와 시련에서 구원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4-7) 현재의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 3. 새로운 내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친히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십니다(8-9). 우리는 매일 “내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운 내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 4.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 중에 바라보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이 화평을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은 하나님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1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던 사랑과 진리, 의와 화평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와 화평이 입 맞추려면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 중에 바라보는 이 한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구정연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 2월 7일(목) 08:00-8일(금)12:00

### '잠언 - 말라기' 를 범위로 · 웨스트민스터 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 서울교회는 휴일이 길게 이어지는 명절연휴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다가오는 구정연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며 연휴를 말씀 안에서 보내게 된다.

이번 성경통독사경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실시된 '성경일천독 대장정'을 최종 마무리 짓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아직 성경일천독 대장정을 마무리 짓지 못한 성도들은 마지막 기회인 이번 성경통독사경회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이루도록 기도한다.

범위는 구약성경 잠언부터 말라기까지이며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강사로 선다. 회비는 1만원(식비 및 간식비)이다.

낭독은 매 교시 당 4명의 교역자가 1장씩 번갈아 낭독하고 낭독자들이 읽는 동안 성도들은 일체의 잡담을 금하며, 눈으로 글씨를 바로 보고 귀로 정확하게 들으면서 함께 성경을 읽는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는 전체가 "00장"이라고 힘차게 외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며, 끝부분에는 "아멘"이라고 외친다.

성경전체의 흐름(맥)을 기억하면서 읽도록 하며 손으로 색연필을 들고 줄을 치거나 각종표시를 하면서 읽는다.(예) 주황색 : 경고의 말씀(회개), 빨강색 : 약속의 말씀, 파랑색 :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 교재는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한다.

# 탈북자 구출 1,300 여 명

## -북한 구원운동 본부 발표-

탈북난민 보호운동의 탈북자 구출 운동과 북한구원운동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1,250명의 탈북자들이 구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탈북자 총수는 12,500명으로 추산되며 이의 절반의 일을 직간접으로 구출해낸 셈이다.

중국 등 북한 인접국가에 피신하고 있는 탈북자 한 사람을 국내까지 데려오기 위한 경비는 1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과 개인 후원자들이 매월 정기 후원을 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운동본부 측은 밝히고 있다.

## 군 복무자를 위한 월례기도회

민족의 75%의 복음화를 위한 군복무중인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비전2020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에서 진행 중인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례기도회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되며 금번은 2월3일(주일, 오후3시30분, 901호실) 갖는다.

군 복무중인 청년들이 가정과 사회를 떠나있는 동안, 군 파송 준선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고 우리교회 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군 복무중인 청년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군 파송준선교사로서의 전도의 사명까지를 감당 할 수 있도록 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 농어촌100교회운동

### 비전2020운동을 후원하는 성도

(농어촌100교회)

4교구6다락방 5교구5다락방 김상태(김숙자) 김현수(이은희) 노병호(홍지나) 민혜정 박정섭(1/2) 이견모(1/2) 이영자 이인숙 제1권사회 탁경준 홍성모(노은아) 홍승전(황정임)  
(다음 주 계속)

(비전2020운동)

김복녀, 권신영, 권소영, 김순덕, 김영준, 김찬용, 김필임 나점균 박원근, 방계은, 박석현(김점숙), 박찬성(심명숙), 박희석, 박기남(강영숙) 신삼철, 손태기(박우옥), 신용건(김민희), 신규철, 이동수(윤정식), 이희국(김인숙), 안성현(유숙인), 이희민, 이지은, 이경실, 이병도(박미영), 유상득, 이승래, 이진구(이수련), 원명희, 임송자, 이남성(최영란), 이우진(김일순), 윤운, 임광호 이근희(정복순), 이상은, 이준수, 위성남, 유후자, 임훈규, 유태서, 임귀순, 이동만, 임낙식, 이규희, 윤은식, 이영조(이영자), 안창희, 은기장(김경숙), 정인주, 조순엽, 정동학(김복순), 정찬주, 이명구(문옥일), 전광영, 최영탁, 최공천(이정희), 최영순, 최정민, 최금자, 홍정란, 홍승전, 홍승자, 홍혜란, 한충현, 홍재식  
(다음주 계속)

## 초등부 임원선거

초등부(부장 : 우지원집사)는 2008년도 회장에 김성경, 부회장에 임수현 어린이를 선출하였다.

시간	낭독자	2/7(목)	2/8(금)
1교시: (08:00-10:00)	이규정, 윤영국, 한상은, 서명철	개외에배(이종운 목사) 잠언 1장 - 이사야 11장	에스겔 27장 - 호세아 6장
2교시: (10:15-12:00)	정수길, 장석남, 노현상, 이태훈	이사야 12장 - 이사야 66장	호세아 7장 - 말라기 4장
점심: (12:00-13:00)			
3교시: (13:00-14:55)	이규정, 윤영국, 한상은, 서명철	예레미야 1장 - 예레미야 42장	
4교시: (15:10-17:00)	정수길, 장석남, 노현상, 이태훈	예레미야 43장 - 에스겔 26장	

# 협력과 일치를 위한 공동신앙선언서 발간

## -한기총 62개 교단 하나의 신앙고백으로 모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62개 교단의 신앙고백을 하나로 모은 공동신앙선언이 책자로 발간되었다. 이 책자에는 한기총신학연구위원회(위원장 이종운 목사)가 한기총 가맹교단 신학자들과 장기간 연구를 거쳐 작년 8월 초안을 발표한 후, 최종보완 작업을 거쳐 마침내 이를 책자로 완성한 것이다.

한기총은 혼란스런 한국의 사회상 속에 교파이기주의와 분열이 한국교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어느 때 보다도 교회의 연합과 협력이 절실한 시대임을 많은 교회들이 크게 공감하고 있음에 때맞추어 정통기독교의 신학적 고백으로 공동신앙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동신앙선언은 하나님의 목적, 성경의 권위, 그

리스도의 유일성, 성령의 능력, 교회의 사명, 전도와 문화, 교육과 지도력,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연합과 협력, 복음의 체현, 복음의 명료성, 그리스도 앞에서 일관성, 자유와 핏박, 전도자의 겸손, 그리스도의 재림 등 총 15개 주제에 대한 신앙고백을 담았으며 각 주제에 해당하는 신규약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공동신앙선언 작성 작업은 한기총 이종운 신학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어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예장 고신, 예장 대신, 예감, 기하성, 루터회, 등 한기총 62개 가맹교단 중 신학연구위원을 파송하고 있는 41개 교단 64명의 신학자들이 참여했다.

사해안 살리기 봉사를 마치고

# 기름 젖은 태안의 갯가에서

황금빛 노을이 황해의 수평선을 달려 모래 위에 황홀하던 해상공원 만리포가 시커멓게 늘어붙은 죽 음의 기름더미를 떨치고 옛 모습을 찾아 가지개를 권 다.

사건 후, 1주일, 12월13일 신두리 해변의 매서운 바람 속에 기름투성이 우비로 무장한 상기된 한국인 들의 행렬이 참으로 잘 생겨보였다. 양손을 두 뺨쯤 벌려 '이렇게 두껍던 기름 덩이를 그새 다 치웠시유' 하는 태안 아주머니가 그 난리 통에도 위안이 되었 다.

그 많은 교회버스들과 교회 천막이 회개와 사랑을

한 번 더 실감케 했다.

2월의 첫날 의항리 개목 갯가에서 바가지에 보리 쌀 찢던 선인의 솜씨로 자갈을 부벼대고 바위를 들추 고 파고 또 파고 내려가 검은 황금 기름덩이를 후벼 내는 서울교회 봉사단 72명의 더운 숨결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의 생명력을 되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 겠는가.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내려주시는 질책에 겸허히 분발하는 이 백성들에게 새 마음 새 힘을 주시옵서.

김형택 집사(12교구)



▲ 해안가 바위와 자갈밭을 들추어 기름을 찾으며...



▲ 아직도 이렇게 기름(타르)에 젖어있는 자갈.



◀ 닦고 또 닦아도 끝이 없다.



천국시민 양성 - 대학부 수련회 초대

# 생명, 새 생명



김필구 (대학부 회장)

날이 갈수록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세상의 소리로 시끄럽고 분주해지기 쉽습니 다. 더욱이 20대의

청년들은 스스로는 성장했다고 생각하나 영적으로는 아직 미숙하기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의 물살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12:1)는 말씀처럼 이 소중한 때에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깊이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학부는 오는 2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강화도에서 "생명, 새 생명!"(요10:10)이라는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을 잠시 접고 2박 3일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찬양, 목사님의 말씀 선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분께 쏟아놓는 기도회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듯하게만 알아왔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조별로 성경공부가 진행됩니다. 또한 게임과 친교, 축복과 격려의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젊음 또한 주셨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진 이 젊음을 어떻게 하면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학부 겨울수련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떠한 금은보화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면 3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부 겨울수련회를 위한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전12:1)



천국시민양성 - 신앙강좌1부

# 대속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교리

남순덕 권사(신앙강좌1부 부임)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를 잃어 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성공만능주의와 물질주의를 따라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며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잘못을 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지고 ... 십자가를 향하여 매일 매일 비우고 채우는 신앙의 증진을 위하여 오늘부터 신앙강좌 1부에서는 '대속론'을 김영한 목사님께서 강의 하십니다.

"대속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요성, 십자가 대속의 충족성, 우리 구원의 온전성 등에 관하여 배웁니다.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대속론은 총족 대리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에 대한 형벌이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가 당신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우리가 대속론을 은혜로 잘 배우고 깨

달아 십자가를 체험하는 축복의 장이 되실 줄 믿습니다.

김영한 목사님은 1993년부터 우리교회에 협동 목사님으로 그간 여러 교회 학교를 맡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은 송실 대학교 기독교 대학원 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국내외 큰 영향력을 끼치시는 교계의 거목으로 굳건히 지키고 계십니다.

김영한 목사님께서서는 10여년 전 암 투병으로 삶과 죽음을 넘나 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셨던 기적의 주인공이기도 하십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건강하시어 학교에서 후학을 가르는데 전념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신앙강좌 1부에서 종말론 24 강의로 큰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금년에는 구속론 강의로 목사님 말씀이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교회적으로도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기도 드립니다. 구속론 강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간 : 매 주일 12:40 - 1:30  
· 장소 : 901호 (신앙강좌 1부)

## 특별찬양

오늘저녁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악과장 오광호 교수의 클라리넷 독주와 성악의 Duo Ensemble 로 이루어진다. 오 교수는 독일 하노버 음대를 졸업하고 부라운슈바이크 교향악단의 수석주자로 오랜 연주생활을 하였으며 유럽 각지의 여러 교향악단들과 수 차례에 걸쳐 협연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KBS 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하였고, 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 한국클라리넷 협회 명예 회장직을 맡고 있다. 오 교수는 유려한 음색과 고도의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클라리넷 계의 대부라 칭함을 받고 있다. 반주를 맡은 부인 김 윤정 교수는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캐나다 로열음악원 서울 분교 전임 교수로 계신다. 오늘 저녁은 우리교회 김정희 교수(가브리엘 지휘자)와 함께 "예수 나를 위하여" 외 3 곡으로 찬양을 드린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4일(월) 북한구원운동 총회를 소집한다.

■ 이사 : 장윤기 집사, 노애리 집사(12교구)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롯데선경아파트 408동 301호, 전화 011-9780-1021

■ 주간식당봉사 : 안드레선교회(2,3), 베드로 선교회(2,10)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30분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새 벽 5시30분	

성경필사를 마치며

## 삶의 진정한 양식

나소정 (청년부)

2004년 시월에 시작한 성경필사를 지난 2007년 세밑에서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만 3년의 시간 동안 성경 한 권을 오롯이 가슴에 새기게 된 일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사학위논문 준비하던 2004년의 어느 날, 저는 문득 성경필사를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 읽어나가는 수많은 책들의 진정한 소용이 무엇인지, 학위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용한 물음을 가져 보고, 제 삶에 무엇이 우선 되고 무엇이 가장 값진 것인가에 대해 자문해 본 직 후였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총명하고 밝은 머리와 힘겨운 젊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지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 오직 하나,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일, 주님 한 분 뿐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은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다 제일 먼저 성경을 펼쳤고 또한 성경과 함께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학위를 마치기 전에 성경필사를 먼저 마치리라 다짐하며 가장 맑은 정신일 때와 가장 지쳤을 때마다 말씀을 펼치곤 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들 벽차하고 고되게 여기는 학업의 길도 기쁘고 신바람 나게 마칠 수 있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잠 1:7)이라는 말씀과 같이 세상의 학문도 튼튼

한 토대 위에 제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매일의 삶은 나무가 그 가지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연대함과 같이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저를 성장하게 하였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만이 제 삶의 진정한 양식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곳에 저를 세워놓으신 뜻과 부르시고 보내실 곳을 향해 항상 준비하는 그릇이 되고자 깨어 있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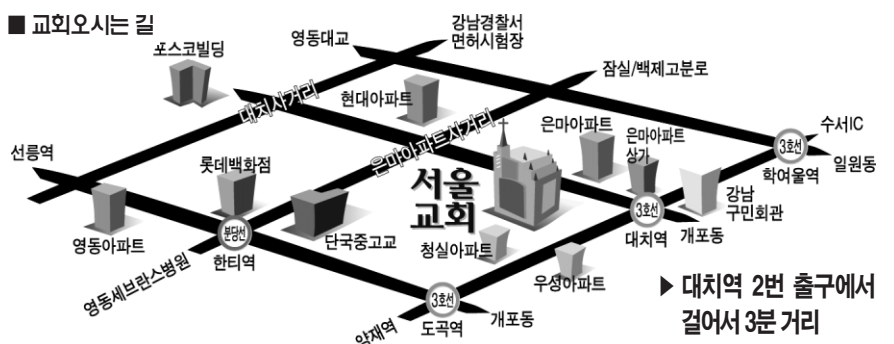
아침저녁으로 작업을 위해 컴퓨터 앞에 있을 때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8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구정 연휴 기간은 가족 · 친척 전도의 기회로 삼게 하소서.
3. 사랑의 집 터를 속히 보여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4. 농어촌 미자립 교회 100교회 운동후원과 비전2020운동 후원자가 많이 생기게 하소서.
5.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